16, March, 2026 Vol. 113

E S G

| Bi-Weekly |

신영 ESG

"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위한 장이 열리다 "

Contents

ESG essay

신영's View

ESG 탐방 노트
아모레퍼시픽

ESG ETF 따라잡기
iShares ESG MSCI EM Leaders ETF(LDEM)

ESG News Clipping

ESG essay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 oh.gwang-young@shinyoung.com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위한 장이 열리다

금융위 자본시장법 '경영권 영향 목적' 법령 해석 명확화 발표

금융위, '경영권 영향 목적' 보유 의미 명확화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지원 →법령 해석을 통해 ① 주주총회 문화 개선, ② 자기주식, ③ 배당, ④ 임원 보수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사례를 제시

최근 정부는 2025-26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량보유 등의 보고(이하 '5% 룰')시 적용되는 주주활동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을 발표함. 현재 자본시장법령은 주식 등을 대량보유한 자는 보유주식이 5% 이상이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또는 보유목적 변동시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단, 지분 보유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시기한 완화, 보고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적용됨. 이때 '경영권 영향 목적'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주주활동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어 기관투자자들이 주주활동을 하는데 부담이 되어 왔음.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법령 해석을 통해 ① 주주총회 문화 개선, ② 자기주식, ③ 배당, ④ 임원 보수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활동의 범위에 대해 안내함.

도표 1 대량 보유 보고 제도(5% 룰)와 관련된 주주활동 보고 의무

보유 목적	경영권 영향 목적		경영권 영향 목적 없음			
			일반투자자		단순투자	
주주 활동	임원 선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유형의 주주활동		단독주주권만 행사 ※ 예 : 의결권, 신주인수권	
보고 의무	(일반투자자)	5일 상세	(일반투자자)	10일(신규: 5일), 약식	(일반투자자)	월별 약식 (신규: 5일)
	(공적연기금)	5일 약식	(공적연기금)	월별 약식	(공적연기금)	분기보고 약식

자료 : 금융위원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총회 문화 개선 관련 다양한 주주활동 사례 제시

먼저 주주총회 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조기 공시를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등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 지표 준수 요구, 안건상정 순서 수정 요구하는 등의 주주활동은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령 해석을 통해 명확화 함. 다만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관련된 정관 변경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는 제외됨.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자기주식 관련 다양한 주주활동 사례 제시

자기주식과 관련해서는 금융위는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의 이행을 요청하는 것은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 이는 최근 개정 시행된 상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주식회사는 자사주를 새로 취득하게 되면 1년 내 소각하고, 기존 보유분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함.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배당 관련 다양한 주주활동 사례 추가 제시

주주환원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히는 배당의 경우, 이미 지난 2020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권 영향 목적 관련 항목에서 제외됨. 금융위는 이번 법령 해석을 통해 현금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고, 배당 정책 및 배당 실시 계획 연 1회 이상 통지 등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배당 관련 핵심 지표의 준수 요구, 배당 관련 주주제안 등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추가로 명시함.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보수 관련 다양한 주주활동 사례 제시

마지막으로 임원 보수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현재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활동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되고 있음. 최근 관련 공시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총주주수익률·영업이익률이 임원 보수와 함께 공시될 예정이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과 관련된 정보 공개(2026년 5월 시행)도 강화 예정. 이에 금융위는 기관투자자들이 회사 임원들의 보수와 회사 성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적절한 임원 보수 정책이 설계될 수 있도록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대화를 요청하는 경우도 경영권 영향 목적아 아닌 주주활동으로 안내함. 더 나아가 성과보상, 퇴직금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것이 가능해짐. 다만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관련된 정관 변경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는 제외됨.

정부의 다양한 정책 시행 등으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금융위는 이번 법령해석으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력을 높이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경영권 영향 목적'이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발생하던 법적 불확실성 해소로 공시 부담 등이 완화되며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또한 지난 해부터 진행되어 온 수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과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그리고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의무 등과 맞물려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 할 수 있음. 2025년에 공포된 개정 상법의 대부분 규정은 2026년 7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2026년 정기주주총회는 개정상법 시행 이전에 열리는 마지막 정기 주주총회이자 향후 변화를 대비할 초석이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관련 3%룰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2인 확대, 독립이사

비율 확대, 소수주주권 공시 강화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실질적 변화가 다가오고 있어 긴장감 가지고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금번에 진행될 2025-26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서 기관투자자의 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임. 다만 이번 금융위 법령 해석이 나온 시점이 3월 6일으로 주주총회 슈퍼위크 예정일인 3월 25일~31일 대비 3주 전에 나온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임. 이는 주주제안을 하려면 정기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안건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임.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주주행동주의가 부상함 → 국내에서도 정부의 다양한 정책 시행 등으로 향후 행동주의 성향을 표방한 국내 펀드들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됨

한편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주주행동주의가 부상함. 국내에서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다양한 정책 시행 등으로 향후 행동주의 성향을 표방한 국내 펀드들의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됨. 국내 주주행동주의는 성장과정에 있으며 다변화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 주주연대 플랫폼의 발달로 개인 주주들도 손쉽게 지분을 결집하여 집단적 주주활동에 나서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한경협에 따르면 글로벌 리서치업체 Diligent Market Intelligence가 보고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주행동주의가 2020년 10개 사에서 2024년 66개 사로 급증함. 이와 동시에 '주주제안'도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2024-25 정기 주주총회에서 총 42개 상장회사에 전년도 대비 20% 증가한 164건의 주주제안이 상정된 것으로 나타났음.

기업은 보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됨

여기에 향후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도 증가하게 된다면 주주총회에서 전통적인 배당 증액 요구뿐 아니라 정관 변경, 자기주식 소각, 주식 분할 등 보다 더 다양한 방식의 주주가치 제고 요구가 다수 이루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사와 감사위원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진입을 노리는 보다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기업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강화되는 주주활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다 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됨.

금번 '경영권 영향 목적' 법령 해석 명확화를 비롯한 일련의 정책이 주주활동의 질적 성장과 강화를 가져와 기업 지배구조를 주주 중심으로 재편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사적 전환점'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함

그 결과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개선되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국내 주식 시장의 저평가 요인이 완화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증시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한편에서는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신속한 경영 의사결정 저해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섬세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금번 '경영권 영향 목적' 법령 해석 명확화를 비롯해 수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의무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 등의 일련의 정책이 향후 주주활동의 질적 성장과 강화를 가져와 기업 지배구조를 주주 중심으로 재편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사적 전환점'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함.

ESG 이벤트 & 신영's View

스텔란티스, 도요타 기술로 하이브리드 SUV 개발…EV 전략 속도 조절

- 스텔란티스, 전기차(EV) 중심 전략에서 하이브리드(HEV) 및 주행거리 확장형 전기차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 하이브리드 SUV 개발 과정에서 도요타 계열 공급사 기술 채택. 기존 개발 기술 활용하여 출시 속도 높이려는 전략으로 판단
- 전기차 투자 부담 커지는 가운데 하이브리드가 대안으로 부상

Comments

- 미국의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이에 따른 미국 EV 수요 부진으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략을 후퇴 중
- 반면 충전인프라 영향받지 않고, 연비도 뛰어난 HEV 수요는 커지는 중
- 이에 최근 Subaru, Mazda 등 미국 HEV 시장에 진출하는 업체들이 증가 추세

– Analyst 문용권

배터리 자립 드라이브…中과 가격 격차 90%→30% 축소 전망

- 3/4 EU는 산업 가속화법(IAA) 초안을 공개하며 역내 조달 기준을 명시
- 산업 가속화법(IAA)는 배터리/태양광/풍력 등 전략 사업에 공공 자금을 투입할 때 역내 생산품을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
- 보조금 포함 공공지원을 위해서는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셀을 포함하여 핵심 부품 3가지 항목을 EU 역내 생산 필요(FTA 국가 포함)

Comments

- 기존에는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차에만 원산지 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초안에는 배터리 원산지 규정도 명시됨
-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중국 생산품 수출 대응이 제약될 전망이며, 역내 제조 시설 확보 필요. 현지 투자시 특정 국가 의존도가 40%를 상회하는 전략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그간 낮아졌던 한국 배터리 업체의 유럽 점유율 회복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

– Analyst 박진수

AI 데이터센터 전력 폭증…미국 "전기요금은 기업이 내라" 규제 확산

- 데이터센터 전력 급증…"요금 부담은 기업이"
- 미국 전력정책 쟁점으로 떠오른 데이터센터
- 미국 워싱턴주 의회가 대형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 추진 → 워싱턴주 상원 환경·에너지·기술위원회 HB2515 법안 가결
-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이 일반 전기요금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고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안 마련 → 전력회사는 2026년 10월까지 데이터센터 전용 전력요금제나 운영 정책을 마련해야

Comments

- 전력연구원(EPRI)은 현재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은 미국 전체 전력의 약 4~5% 수준이나 AI 인프라 확장이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9~17%까지 확대 전망
- 법안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2031년 80%, 2046년 100% 청정전력 의무 → 재생에너지 사용을 입증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소각해야
- 최근 미국 8대 빅테크 백악관에서 'AI전력 납세자 보호 서약' 합의 →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 이슈로 떠올라 → 약속만 있고 구속력은 없다는 비판 존재
- 데이터센터 관련 모든 비용…기업 부담으로 설계될 듯

–Analyst 오광영

ESG 탐방노트

화장품 담당 이교석 T.02)2004-9285 / lee.kyo-suk1@shinyoung.com

아모레퍼시픽(090430.KS)

매수(TP 180,000원)

We Make A MORE Beautiful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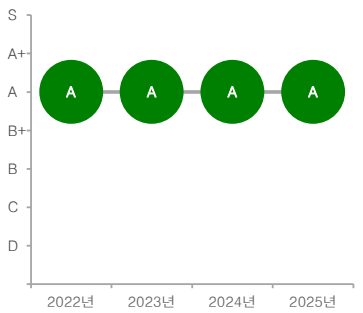
현재주가(3/16) 128,300원

ESG 등급 현황

(평가기관)	ESG	E	S	G
KCGS	A	A	A+	A
Bloomberg	4.59	6.22	2.80	5.04

주: KCGS : S~D 7등급
Bloomberg: 10 만점 기준

ESG 등급 변화 (KCGS)



Key Data (기준일: 2026. 3. 16)

시가총액(억원)	75,163
배당수익률(21F,%)	1.4
외국인지분율(%)	26.1
주요주주 지분율(%)	
아모레퍼시픽그룹 외 16인	50.1%
국민연금공단	8.5%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9.8	3.5	5.9	15.4
KOSPI대비 상대수익률	-20.5	-25.4	-34.2	-47.2

Environment

구 분	단위	2023	2024
온실가스 배출량	천 tCO2eq	25.0	21.2
폐기물 발생량	톤	7,615	6,793
환경관련 투자비	억원	57.3	92.7
환경경영 인증	ISO 14001 인증		
환경경영 조직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설치		

Social

구 분	단위	2023	2024
안전사고 재해율	%	0.16	0.06
기간제 근로자 비율	%	6.1	6.7
여성 근로자 비율	%	71.4	70.7
사회공헌 지출액	억원	134.4	91.8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 중		

Governance

구 분	내 용
주주총회	4 주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제	실시
집중투표제	미실시
배당실시	결산배당(1 회)
이사회 운영 실적	사외이사 참석률 100%

ESG 관련 최신 활동

아모레퍼시픽,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모두 'A' 최고 등급(뉴스톱, 25.12.16)

- 아모레퍼시픽이 글로벌 ESG 평가기관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에서 기후 변화 대응과 수자원 관리 부문 최고 등급 A 획득
- 기후변화 대응 부문 4년 연속, 수자원 관리 부문에서 2년 연속 A등급 획득
-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수질 오염 최소화, 오산 아모레 뷰티 파크 폐수 재활용을 통한 순환수자원 활용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음

아모레퍼시픽, '2026 밋유어뷰티 클래스' 참여기관 모집 (비즈니스리포트, 26.02.26)

- 아모레퍼시픽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청소년의 건강한 미의식과 긍정적 자기인식 형성을 돕는 밋유어뷰티 클래스에 참여할 교육기관을 모집함
-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미의 기준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나다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공헌 캠페인
- 2024년 캠페인 시작 이후, 전국에서 2,300여 명의 청소년과 8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며 아름다움을 외모 중심이 아닌,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확장하는 변화를 만들어 옴

아모레퍼시픽, '中 에너자이징 유스' 사회공헌상 수상 (더구루, 26.03.08)

-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 진행 중인 청년 심리 지원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누적 30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현지 CSR 우수 사례로 인정받음
- 프로젝트명은 아모레 에너징 청년으로 상하이데일리가 주관한 연간 우수 다국적기업 사회적 책임 평가에서 로컬라이즈드 임팩트 어워드를 수상
- 지난해에는 총 79회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14개 대학을 방문해 약 9,210명이 직접 참여함

ESG history

연 혁	내 용
2021년	[E] 국내 뷰티 업계 최초 'RE100 가입'
2021년	[ESG]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립
2021년	[ESG] '2030 A MORE Beautiful Promise' 선포
2023년	[E] 뉴욕 주간 RE100 리더십 어워드 수상
2024년	[E] SBTi 넷제로 목표 승인 획득
2024년	[E] CDP '기후변화 대응' 및 '수자원 관리' A등급 획득
2024년	[ESG] 한국ESG기준원 통합 A+ 등급 획득
2025년	[ESG] MSCI ESG Ratings 'A' 등급 유지
2026년	[S] 자외선 차단 성능 평가 ISO 24443 국제 인증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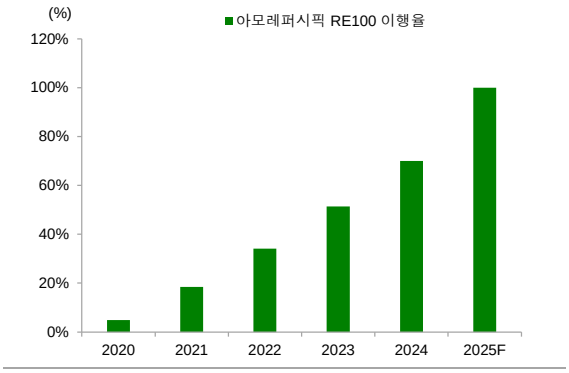
ESG 전략 - 2025년부터 전사에서 재생전력만 사용

동사는 2021년 글로벌 이니셔티브 'RE100'에 가입하며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함. 이후, 전 사업장에 걸쳐 가능한 모든 곳에 태양광을 설치해 옴. 2022년 기업 전력거래 정책 시행 이후, 경북 상주와 충남 단진 태양광 발전소와 20년 장기 계약을 맺기도 함. 2024년 생산사업장과 물류센터 전기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며 전사 기준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70%를 넘어섬. 2025년에는 본사, R&I를 포함한 직영 매장 포함 전 지역 100% 전환 달성이 목표. 아모레퍼시픽 생상 제품 LCA(전과정 환경영향 평가) 결과, 재생 전력 100% 전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 과정 기준 탄소발자국이 7~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제조 단계로만 한정해서 보면 탄소배출량이 약 60%까지 줄어듬. 소비자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직접 선택하고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 중.

ESG Key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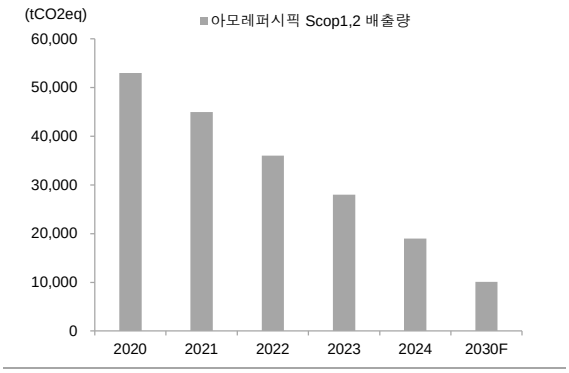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2030 지속가능경영 5대 약속(A MORE Beautiful Promise)' 이행에 집중하고 있음. 고객 사회와의 동행 부문에서는 1)신제품 100%에 환경 또는 사회 친화적 속성을 구현하고 2)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사내외에 확산해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조화로운 성장 구현을 목표로 함. 대자연과의 공존 부문에서는 3) 글로벌 생산 사업장 탄소 중립 실현과 폐기물 매립 제로를 달성하고 4)제품 포장재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하고, 플라스틱 포장재는 100% 재활용, 재사용 또는 퇴비화 가능하도록 설계하고자 하며 5)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위해 100억원을 투자하며 RSPO 인증 팜유 90% 이상 사용할 것을 약속함

아모레퍼시픽 RE100 이행 추이 및 목표



자료 : 아모레퍼시픽,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아모레퍼시픽 Scop1&2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및 목표



자료 : 아모레퍼시픽,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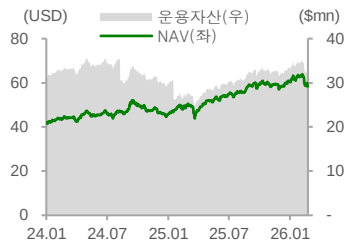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 oh.gwang-young@shinyoung.com

iShares ESG MSCI EM Leaders ETF (LDEM)

Key Facts	
상장일	2020/02/05
기초지수	MSCI EM Extended ESG Leaders 5% Issuer Capped Index
구성종목수	421
순자산총액 (백만달러)	32.8
시장가격(USD)	59.92
NAV(USD)	59.72
총보수(%)	0.16
운용사	BlackRock

Top Holdings (기준일: 2026.03.10)	
TENCENT HOLDINGS LTD	5.41%
TSMC	4.94%
ALIBABA GROUP HOLDING LTD	4.50%
HDFC BANK LTD	2.46%
CHINA CONSTRUCTION BANK CORP H	2.28%
RELIANCE INDUSTRIES LTD	2.18%
DELTA ELECTRONICS INC	1.85%
ICBC	1.22%
GOLD FIELDS LTD	1.10%
ITAU UNIBANCO HOLDING PREF	1.08%

NAV와 운용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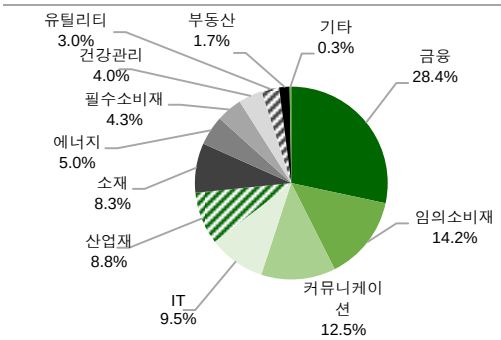
ETF 개요

iShares ESG MSCI EM Leaders ETF(LDEM)는 2020년 2월 상장된 ETF로, 기초 지수인 MSCI EM Extended ESG Leaders 5% Issuer Capped Index를 추종하는 ETF임. 이 지수는 24개 신흥 시장의 대형주와 중형주 중 동종 업종 대비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들로 구성됨(개별 기업 비중을 5%로 제한).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선정은 MSCI Emerging Markets Index의 구성 종목을 기준으로 시작해 먼저 매출액 기준에 따라 주류, 담배, 도박, 원자력 및 무기 관련 기업, 민간용 총기 제조업체 및 주요 소매업체의 주식을 제외함. 이후, 각 섹터에서 시가총액의 50%를 차지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종목을 선정하고 순위를 부여함. 1) 시가총액 상위 35%에 해당하는 적격 종목, 2) 상위 50%에 해당하는 고평가 종목, 3) 현재 보유 종목 중 상위 65% 종목, 4) 기타 적격 종목. 각 단계에서 높은 등급의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며, 각 섹터 내에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투자 종목을 선정하여 구성함. 지수는 반기별로 리밸런싱 됨.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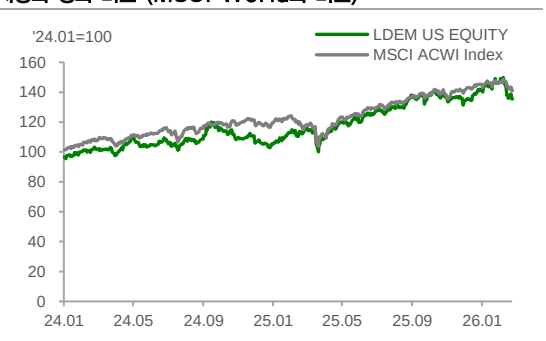
LDEM은 신흥국 기업 중 상대적으로 동종 업종 대비 ESG 지표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ETF로 5%룰로 인해 개별 종목의 집중에 따른 위험을 제한함. 지역별로는 중국(32.3%), 인도(14.8%), 대만(13.8%), 한국(8.4%) 순으로 구성됨. LDEM는 신흥국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 중 상대적으로 ESG 지표가 우수하고 종목 집중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함

LDEM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1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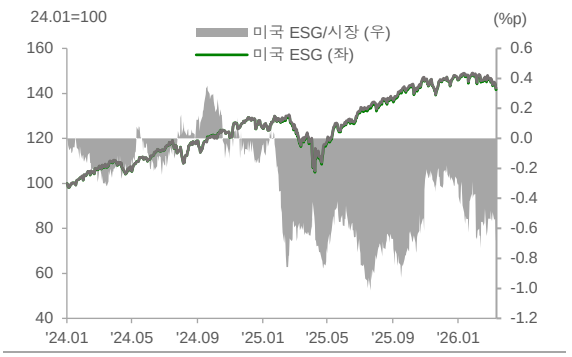
시장과 성과 비교 (MSCI World와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1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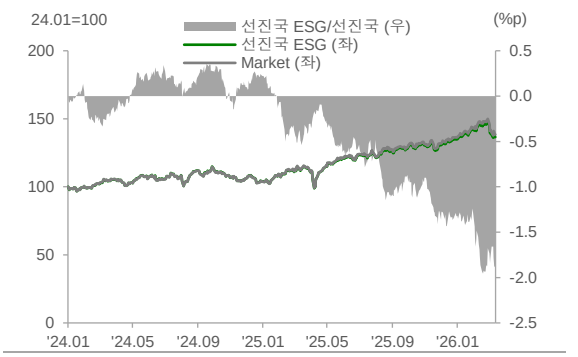
ESG 관련 DATA – 주요 지수 및 ETF의 성과 흐름

미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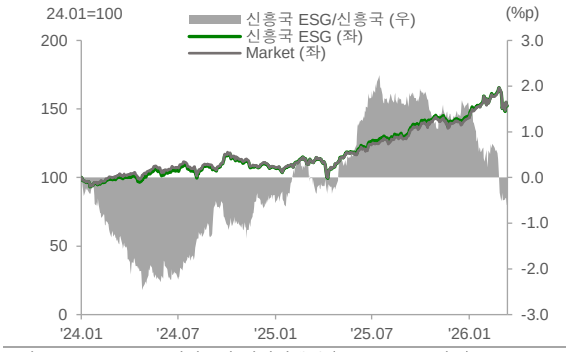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13 기준)

선진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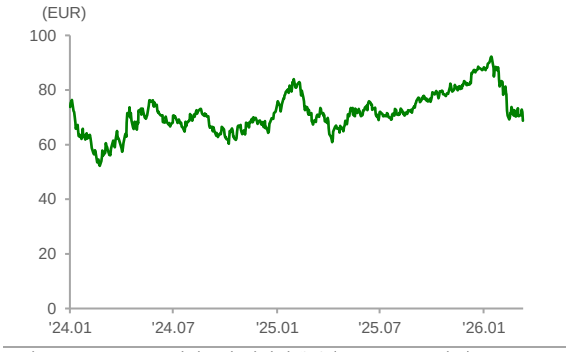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13 기준)

신흥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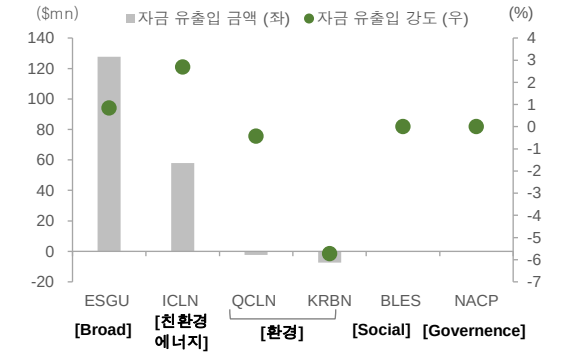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13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흐름 (EU 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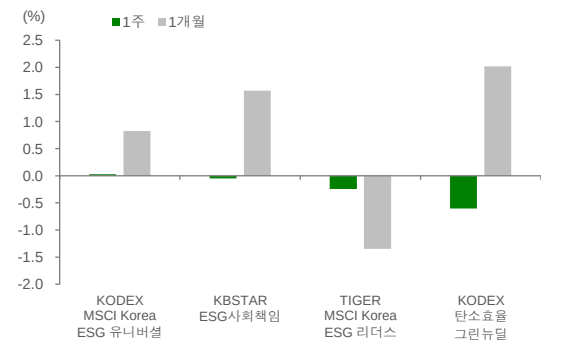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13 기준)

미국 상장 ESG ETF 유형별 1개월 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13 기준)

국내 상장 ESG ETF들 성과 (1주, 1개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13 기준)

ESG 관련 DATA - 미국 상장 ESG ETF 현황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AUM (백만달러)	ETF 개수	AUM 비중	ETF 비중
1	Broad	84,061	60	76.9%	61.9%
2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13,352	13	12.2%	13.4%
3	탄소효율 (Environment)	6,180	13	5.7%	13.4%
4	Social	5,287	5	4.8%	5.2%
5	Governance	391	3	0.4%	3.1%
6	기타	47	3	0.0%	3.1%
ESG 전체		**109,318**	**97**	**100%**	**1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13 기준)
주1: 미국 상장 ETF들을 전체 유니버스로, ETF 상품 개요 (description)를 기반으로 ESG 관련 키워드 검색 (ESG, Social, Climate, Carbon, Fossil, Environment, Clean, Solar, Green, Renewable, Sustain)을 통해 총 124개를 ESG 전략 기반의 ETF로 판단하였음
주2: 향후 키워드는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 또한 ETF 분류에 반영하였음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개요

구분	ETF	ETF	상장일	개요
Broa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2	MSCI USA ESG FOCUS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 최대의 ESG ETF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2018-09-20	FTSE USA All Cap Choice 지수를 추적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9	MSCI USA ESG LEADERS 지수를 추적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Large-Cap Value 지수를 추적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Small-Cap 지수 추적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30	신흥국 투자 ESG ETF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30	북미 제외 선진국 ESG ETF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2018-10-23	채권 ESG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TAN	Invesco Solar ETF	2008-04-15	태양광 관련 기업들로 구성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2007-02-14	미국 상장 기업 중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nvironment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2015-12-01	S&P500 기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비축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2014-12-09	선진국, 신흥국의 라지캡, 미들캡 중,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투자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2020-07-30	탄소배출권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Social	BLES	Inspire Global Hope ETF	2017-02-27	대형주 (시가총액 50억 달러) 중 성서적인 (Biblical) 측면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을 측정하여 투자
Governance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2016-03-08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임원과 이사회 구성하는 여성 비율을 고려, 상위 기업에 투자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2018-07-18	소수 인종의 권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 비영리의 ETF로 운용수익은 NAACP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기부됨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관련 DATA - 주요 ESG ETF의 성과와 자금 유출입

해외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ETF	운용규모 ($mn)	수익률 (%)				자금 유출입 ($mn)		자금 유출입 강도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Broad	ESGU	15,251	-1.13	-2.44	-3.02	0.70	128	166	0.8	1.1
	ESGV	11,304	-1.16	-2.71	-4.54	-1.57	-15	0	-0.1	0.0
	SUSL	1,000	-0.89	-3.29	-3.01	1.92	6	6	0.6	0.6
	NULV	1,896	-1.83	-4.07	-0.70	6.17	-2	-53	-0.1	-2.8
	NUSC	1,145	-2.35	-6.90	-2.87	2.08	5	-120	0.5	-10.5
	ESGE	6,063	-0.44	-6.70	3.91	7.75	65	287	1.1	4.7
	ESGD	10,752	-1.36	-6.72	0.47	3.95	0	-245	0.0	-2.3
	EAGG	4,571	-0.79	-1.61	-0.49	-1.15	53	202	1.2	4.4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2,152	5.47	-0.07	10.92	25.93	58	22	2.7	1.0
	TAN	1,433	2.10	-5.38	14.68	31.72	-69	321	-4.8	22.4
Environment	QCLN	554	3.93	-7.50	3.13	21.60	-2	-7	-0.4	-1.3
	SPYX	2,398	-1.09	-2.47	-2.94	0.69	117	-26	4.9	-1.1
	CRBN	986	-1.26	-3.92	-2.23	1.26	0	12	0.0	1.2
	KRBN	129	-2.65	-4.77	-19.33	-13.63	-7	-19	-5.7	-15.1
Social	BLES	136	-1.35	-4.86	2.42	4.76	0	0	0.0	-0.1
Governance	SHE	272	-1.07	-3.69	-1.10	2.91	-7	-7	-2.4	-2.4
	NACP	62	-0.55	-3.19	-0.65	6.30	0	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13 기준)

국내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ETF	운용규모 (억원)	수익률 (%)				자금 유출입 (억원)		자금 유출입 강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셜	171	0.03	0.83	42.20	81.47	0.0	0.0	0.0	0.0
FOCUS ESG 리더스	115	0.10	-2.15	18.07	33.13	0.0	0.0	0.0	0.0
KODEX 200ESG	882	-0.12	1.21	42.84	86.30	100.2	100.2	11.4	11.4
KBStar ESG 사회책임	2,749	-0.05	1.57	44.81	92.87	1,290.5	1,315.3	46.9	47.8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셜	163	0.07	1.20	43.08	81.82	0.0	0.0	0.0	0.0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159	-0.24	-1.35	27.39	68.19	0.0	0.0	0.0	0.0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476	-0.61	2.02	39.76	74.45	0.0	0.0	0.0	0.0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176	-0.57	2.04	39.48	73.45	-18.5	-18.5	-10.5	-10.5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175	-0.59	2.01	39.67	74.16	0.0	0.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13 기준)
주: KRX 탄소효율그린뉴딜 지수 추종의 ETF들은모두 2021년 2월 4일 상장으로 2021년 YTD 자금 유출입은 상장 이후 흐름임

ESG News Clipping

기업 ESG 뉴스

ESG

(2026.03.03) 뱅가드, 안티 ESG 소송 2950만달러 합의…블랙록, SSIR은 '전투' 계속 - Impact-on

"석탄 생산 줄이려 공모" 주장
PRI 탈퇴·"탄소감축 강요 안한다" 명문화
블랙록·스테이트스트리트는 소송 지속

(2026.03.04) 글로벌 석유·가스 기업 절반, 연차보고서에 ESG 통합 공시 - Impact-on

절반이 연차보고서에 ESG 통합…72%는 별도 보고서 발간
ESG 공시 의무화 확대…EU·미국 규제 영향
기후변화·공급망·인권…향후 ESG 핵심 이슈

(2026.03.06) 현대차, 전기차 판매 약진했지만…공급망 ESG 평가 9위 그쳐 - ESG경제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탄소감축 등 핵심지표 글로벌 선두와 큰 격차
기아도 11위, 中 지리자동차에도 밀려…양사 모두 업계 평균점수 하회
리드더차지 2026 공급망 리더보드…테슬라 1위, 포드·볼보 '상위권'

E (환경)

(2026.03.04) 니오, 중국 '국가 녹색공장' 인증 획득…저탄소 제조 체계 구축 - Impact-on

중국 '쌍탄소 전략' 핵심 정책…5개 기준 거쳐 녹색공장 선정
실시간 에너지 관리·VOC 저감 공정…순환경제 기반 제조 구축

(2026.03.06) 현대차 2045·현대제철 2050…탄소중립 '5년 격차' 지적 보고서 나와 - Impact-on

차량 철강 60% 의존…CBAM 확대 시 공급망 리스크
차량 소재 60%가 철강…Scope 3 배출의 핵심
EU CBAM 확대 제안…유럽 수출 경쟁력 변수
이사회 기후 전문성 부족…글로벌 기준과 격차

(2026.03.09) 애플, '탄소중립' 그린워싱 소송 1차 승소…법원 "허위 입증 부족" - Impact-on

애플워치 '탄소중립' 광고 소송…법원 "허위 입증 부족"
그린워싱 소송 증가…기업 기후 커뮤니케이션 시험대
탄소중립 마케팅 기준 혼란…글로벌 규제 논쟁 지속

(2026.03.09) BP, 벤처글로벌에 최대 60억달러 배상 요구…LNG 산업 최대 분쟁 - Impact-on

BP, 최소 37억달러 청구…LNG 산업 최대 분쟁
장기 계약 물량 대신 스팟 판매 논란
스팟 89달러 vs 장기 5달러
미국 LNG 신뢰성 시험대

(2026.03.11) 스텔란티스, 도요타 기술로 하이브리드 SUV 개발…EV 전략 속도 조절 - Impact-on

도요타 기술 도입한 지프 체로키…핵심 파워트레인까지 외부 의존
전기차 투자 부담 커지자 완성차 업계 전략 수정
하이브리드 판매 급증…EV보다 빠른 성장

G (지배구조)

(2026.03.04) 도요타 인수전 흔든 행동주의 투자…LG화학 주총까지 번졌다 - Impact-on

행동주의 압박이 바꾼 인수 가격
행동주의 투자, 기후 전략까지 개입
한국 주총 시즌 변수로 부상

(2026.03.11) 엑손, 뉴저지 떠나 텍사스 간다…기후전쟁의 '법적 운동장' 바꾸나 - Impact-on

텍사스 기업법 개정…주주 압박 통로 좁혀
"주주권 제한 아니다"…기업 설명과 시장 해석
기업들 텍사스로…델라웨어 아성 흔들리나

정책 ESG 뉴스

E (환경)

(2026.03.04) EU, 2035년 車 규제 완화 대신 '저탄소강 의무'...현실은 공급난 반발 - Impact-on

2035년 규제 100%→90%… 남은 10%를 '저탄소 철강'으로
"그린 철강, 30% 비싸"… 철강사들 전략 수정
"정의도 기준도 없다"… 車업계 '와일드 웨스트' 비판

(2026.03.05) EU, '산업 가속화법' 초안 공개…전기차 부품 70% EU 생산 기준 - Impact-on

전기차 부품 70% EU 생산…공공조달 기준 대폭 강화
IRA 이후 산업정책 경쟁…공공조달로 '리드 마켓' 만든다
중국 공급망 견제…EU 내부에서도 논쟁

(2026.03.05) 알래스카 유전 개발권 입찰 '0건'…트럼프 에너지 확대 첫 시험대 - Impact-on

높은 개발 비용과 제한된 자원
셰일 중심으로 재편된 미국 석유 투자
알래스카 개발 가로막는 비용과 투자 리스크

(2026.03.10) EU, 폐식용유 항공연료 지원 축소 논의…SAF 정책 전환 신호 - Impact-on

EU, SAF 보조금 구조 개편 논의…합성연료 중심 전환 압박
유럽 항공사들, 폐식용유 SAF 확대…덴마크 노선이 대표 사례
폐식용유 SAF 공급 한계…정책 전환 압력 커져

(2026.03.11) 배터리값 떨어지자…'24시간 태양광' 현실 되나 - Impact-on

배터리 붙인 태양광, 낮 발전소에서 '상시 전원'으로
배터리 가격 하락, 태양광 경제성도 바꿨다
칠레·아프리카로 확산…전력망 보완 수단 부상

(2026.03.12) 훼손된 자연 복원에 기업 참여 허용…ESG 성과 인정 길 열렸다 - Impact-on

민간 자연복원 참여 허용…ESG 성과로 인정
진입 장벽 낮춰 시장 확대…생태관광 인증 도입

(2026.03.12) "환경 vs. 성장 이분법 끝났다"...글로벌스캔 3만명 조사 결과 - Impact-on

정부, "올해 법적 근거 마련 및 '27년 시행 목표로 도입 추진"
성별 임금 격차 구조 공개…'성평등임금공시제' 법안 발의
노동자 임금정보 청구권·정부 개선계획 의무 규정
유럽 주요국, 이미 임금 공시 통해 성별 격차 관리

S (사회)

(2026.03.06) 정부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적 근거 올해 마련...'27년 시행 목표" - ESG경제

EU 공공조달을 지렛대로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을 추진
'유럽산'과 '저탄소' 기준을 제도화하는 산업가속화법(IAA)을 추진

(2026.03.12) 일본 '기업과 인권' 행동계획 개정…"공급망 인권 실사 의무화 빠져" - Impact-on

인권 실사 기대 수준 강화…투명성·공시 강조
"의무화 신호 부족"…공급망 실사 강화 권고

G (지배구조)

(2026.03.06) "자사주 소각 요구 경영권 영향 목적 아냐"…금융위, 기관 주주활동 범위 명확화– 연합인포맥스

법령해석으로 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 이행 지원
상반기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일반 ESG 뉴스

ESG

(2026.03.09) 국내 기업 76% 이미 스코프3 공개…"기후공시 부담" 금융위와 온도차 - Impact-on

공급망 배출까지 공개…기업 공시 범위 빠르게 확대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전환은 아직 초기 단계

E (환경)

(2026.03.03) 배터리값 떨어지자…'24시간 태양광' 현실 되나 - Impact-on

배터리 붙인 태양광, 낮 발전소에서 '상시 전원'으로
배터리 가격 하락, 태양광 경제성도 바꿨다
칠레·아프리카로 확산…전력망 보완 수단 부상

(2026.03.03) 기후 목표 못 지키면 이자 오른다…지속가능연계채권, 올해 첫 대규모 평가 결과는? - Impact-on

목표 못 지킨 기업들, 이자와 만기 상환액 늘어
콜옵션과 유연조항, 약관 설계가 신뢰를 가른다
2025년, 첫 집단 시험대에 오른 SLB

(2026.03.04) EU 배터리 자립 드라이브…中과 가격 격차 90%→30% 축소 전망- Impact-on

정책 불확실성과 수익성 약화로 글로벌 PPA 체결 둔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글로벌 재생에너지 구매 비중 49% 차지…
재생에너지 수요 견인

(2026.03.06) 해운업계 90개 단체, 탄소세 협약 촉구...IMO 회의 앞두고 압박 - Impact-on

선주·항만·물류사 90개 단체 "IMO 프레임워크 채택하라"
미국, "협박 전술"로 합의 무산시켰다는 비난
4월 런던 회담이 분수령

(2026.03.06) AI 전력 폭주에 재생에너지 공급은 제자리…미국 전력망 '구조적 미스매치' 경고 - Impact-on

59GW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지연…평균 19개월 늦어져
2500GW 발전 프로젝트 송전망 접속 대기
PJM·MISO·ERCOT "전력 예비력 부족 위험"
PPA 시장도 둔화…향후 공급 확대 속도 변수

(2026.03.09) 호르무즈 전쟁보험 12배 급등…한국 원유 70% 통로 흔들 - Impact-on

호르무즈 전쟁보험료 최대 12배 급등
VLCC 운임 48만달러·브렌트유 92달러 돌파
한국 해운·에너지 공급망 직접 노출
미국, 200억달러 재보험으로 해운 안정 나섰다

S (사회)

(2026.03.10) 글로벌 공급망 이주노동 인권침해 확산…제조업 한국 공동 2위 - Impact-on

미국 기업 연루 사례 최다…메타·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 포함
글로벌 제조업 인권침해 80건…대만 1위, 한국 공동 2위

G (지배구조)

(2026.03.09) 글로벌 상장사 이사회 여성 비중, 평균 28.3% '사상 최고'…韓 20%육박- ESG경제

MSCI 분석, EU 성별 균형 지침 시행 맞아 이사회 다양성 확대
헬스케어 여성 이사·CEO 비중 최고…IT는 CFO·이사회 의장 두각

(2026.03.10) 상장사 45%,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배당확대 효과 '뚜렷' -ESG경제

리더스인덱스 조사…2025년 대상기업 398곳, 20.6%포인트 급증
순이익 급증에 배당성향은 22.9%로 전년 24.9%보다 소폭 하락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종목
-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
-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 **중 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기준일(20251231)	매수 : 87.18%	중립 : 11.54%	매도 : 1.28%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 계약
	ELW	주식	주식선물	주식옵션				
아모레퍼시픽	-	-	-	-	-	-	-	-

아모레퍼시픽 :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괴리율(%)	
			평균주가	최고(저) 주가
2026-03-16	매수	180000		
2026-03-12	매수	180000		